

사료공동 구매로 경쟁력 향상

- 전국 최초 AI백신 지원 -

평택지부(지부장 조성우)가 지난 11월 12일 죽백동 소재 지부사무실에서 현판식 및 개소식을 갖고 재탄생 하였다. 평택지역은 산란계 71농가에 2,164,000수, 육계 181농가에 1,248,000수가 생산될 정도로 양계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고는 평택지부 조성우 지부장을 만나 향후 지부운영 및 양계산업 발전 방안을 들어보았다.

회원 배가운동 앞장

평택지부는 30년 전인 1980년대 계우회가 발족되면서 탄생하였다. 그동안 자체 사무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2004년 조성우 지부장이 평택지부를 이끌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높

이고 사료공동구매사업 등을 통한 자금조성으로 마침내 평택시 죽백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축협양계작목반을 조직하면서 양계회원들의 권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평택지역은 소규모 농가까지 합해 250여농가에서 양계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평택지부에는 37농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성우 지부장은 사무실을 새롭게 마련한 만큼 향후 육계회원들까지 참여를 높여 100명 이상까지 회원 배가운동에 적극 앞장설 뜻을 밝혔다.

시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이끌어

조성우 지부장은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농가들의 권익대변에 앞장서고 있다. 가장 보탬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는 2008년 4월 평택지역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된 이후 저병원성 AI 백신 공급 지원을 요청한 결과 시(市)에서 적극 사업으로 전 농가에 백신을 지원해주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도 ND백신 사업, 계란의 위생적인 공급을 위한 세척기, 코팅기, 마킹기 지원, 대형환, 생균제, 스키로더, 안개분무시설, 톱밥지원 등 농가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여 대부분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는 조성우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주 시청을 찾아 양계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노력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조성우 평택지부장



회원들이 한자리에

송명호 시장의 양계분야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고, 이한덕 축산과장 역시 실무를 맡아 양계분야에서 서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분야에 지원되는 시 예산은 약 116억원 정도이며 이중 양계분야에는 20여 억원이 책정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분처리와 계란유통 개선 시급

평택지부는 조성우 지부장을 주축으로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계작목반을 구성, 활동하고 있다.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료공동구매사업은 협회와 작목반 활동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사료공동구매를 통해 이미 1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면서 농가들의 결집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성우 지부장은 향후 지역내에 공동 GP센터

<지부임원명단>

- 지부장 : 조성우
- 부지부장 : 김영부, 원유용
- 총무 : 이육용 • 감사 : 조이종, 이근성
- 이사 : 권무하, 문현명, 배상기, 유해정, 김준기
안혜식, 조현일, 양승덕

를 건립하기 위한 구상에 들어갔다. 계란 유통 구조개선 문제가 해결되면 농가들의 소득이 커질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성우 지부장은 양계 작목반을 통해 브랜드사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도 구상중이다.

조성우 지부장은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계분처리 문제와 위생적인 계란유통을 위한 종이난좌 공급, 또한 겨울철 난방을 위해 필수적인 열풍기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계분처리 시설은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 친환경 양계사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계**